

Urbanature
bystreet
<Jeongja dong>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팟 리포트타주

기획 및 분석: 이순영 (트렌드 전문가)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취재 및 사진/비주얼 맵핑: 김세은

테마 명:

-제 3편-

Urbanature- bystreet

어번네이처

바이스트리트

Nature-light
bystr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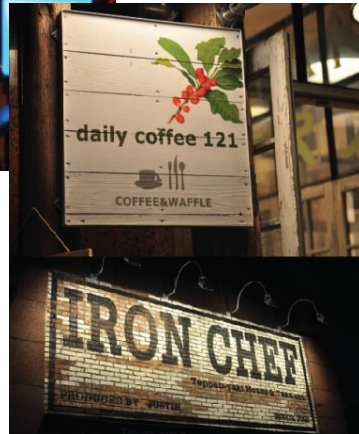
<Jeongja dong>

Blue 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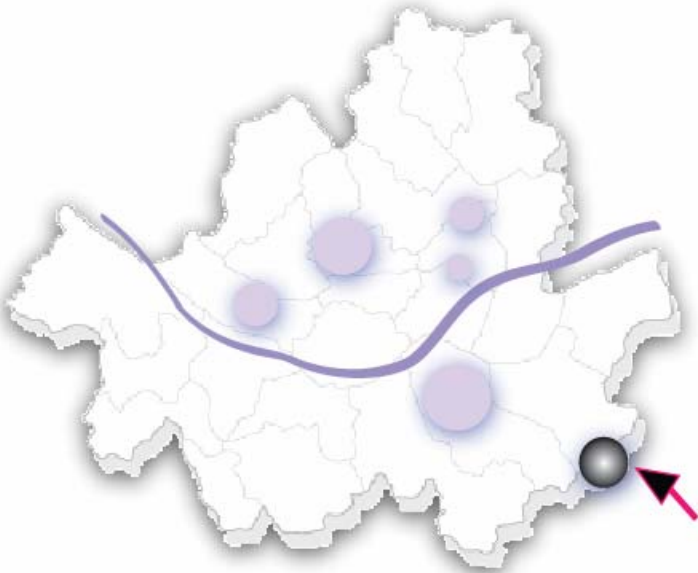
Nature-Material
bystreet

<Jeongja dong>



Urbanature-bystreet

분당 정자동<Shinsa dong/Geongja dong>



3 focus in Geongja dong

Main: Urbanature-bystreet

Sub-1: Natural-light bystreet

Sub-2: Natural-sigh bystreet

Urbanature-bystreet

Urban + Nature 의 합성어로 도심지와의 자연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키워드를 도출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심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락함과 문화적인 요소를 동시에 충족 시켜주고 있다.

신흥 도시인 분당 정자동의 카페 골목은 비록 짧은 거리 이지만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 사이에 다양함을 어필하며 작은 규모로 아기자기 하게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Urbanature bystreet

<Jeongja dong>



102E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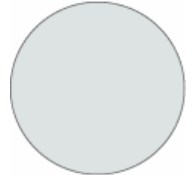
3A493D



368F43



5B2F1B



DDE1E0



151A1D

테라스와 전원이 느껴지는 골목길

분당 정자동 카페골목은 작은 유럽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이들이 편안한 휴식과 친목을 위해 모이는 장소로 최근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청담동과 흡사하여 흔히들 '청자동'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 하여 서울, 경기지역에서 많이 찾는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다.

카페골목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야외 테라스가 있어 노천카페와 같은 인상을 준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와인이나 카페를 즐긴다. 평일 시간 보다는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이곳에 모인다. 작은 규모에 맞추어 테라스에는 작은 테이블과 작은 자전거 등의 매치를 통해 이국적인 아기자기함을 연출한다.

또한, 도심 속 작은 정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출 하기도 한다. 실제 유럽식 정원과 같이 온갖 식물과 소품들로 그 모습 그대로를 재연하며 이끼(moss)를 이용하여 자연석으로 된 벽면을 그대로 덮고 있거나 텍스처의 표면효과를 그대로 살린 무릎 담요 등... 다양한 활용을 한 내부 인테리어는 숲 속으로 들어 간듯한 인상을 준다.

신도시의 작은 골목길을 통해 유럽식의 테라스 문화, 정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주목되고 있다.

Colors way

식물에서 오는 칼라레인지로 그린계열에서부터 브라운까지의 칼라 계열이 연출된다.

Nature-light bystreet

<Jeongja dong>



85C4D2



F6EC1D



89BC53



BFA06D



C7C6C6



020202

간접조명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

우리나라 어느 장소에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특히 네온사인이 가득하다. 그러나 카페골목의 밤은 은은한 간접조명들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있다. 먼저, 외부 간판 조명을 보면 간판 글자체 내부에 조명을 넣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양각으로 된 간판 글자체에 위나 아래서 혹은 글자 뒷면에 은은한 간접적으로 조명을 쏘아 올려 시각적인 편안함의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조명 중 인테리어를 위한 조명의 경우 미드 라이트(mid-light)톤으로 밝은 빛을 반투명 소재를 이용해 부드러운 빛으로 여과 시켜 연출하며, 이러한 형상은 기본적인 박스 형식에서부터 물고기 형상까지 다양하게 연출하고 있다. 작은 골목길에는 인공적인 밝은 빛이 아닌 따뜻하고 네추럴하고 소프트한 칼라감도에 가까운 빛을 밝히고 있다.

내부 조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밝게 밝히는 빛이 아니라 유럽에서 초를 이용하여 어두운 빛을 발하듯이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연출하고 있다.

Colors way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중성톤의 라이팅 칼라가 다양하게 연출된다.



Nature-sign bystreet

<Jeongja dong>



D18DAA



624F3E



907C2F



F0E4BF



221714



AE8B5A

자연적인 소재의 사인 (sign)

외부 자재 사용에 있어 나무나 벽돌과 같이 미 가공 상태와 같아 보이는 소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간판을 연출하고 있다. 벽돌 위에 칼라 링을 하여 벽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오래 된 느낌의 간판은 인공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를 보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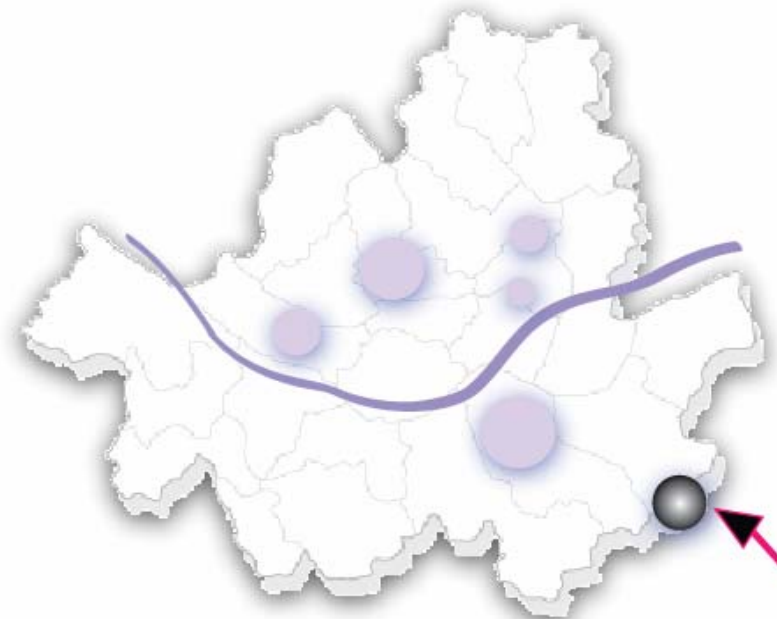
또한, 조약돌과 같은 텍스처를 연출한 표면효과는 촉감과 함께 동반되는 패턴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된 우드 소재는 인공적으로 가공된 것부터 자연의 그대로를 재연한 재료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인테리어 내부와 외부, 간판까지 모두 우드소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어필한다. 이러한 카페의 경우 신선함과 오가닉 메뉴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커피는 그냥 사용할 만큼의 커피를 로스팅 하여 사용한다거나 유기농 오가닉 차와 식 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자연적인 사인은 그곳의 음식까지 함께 보여주는 역할로서 보여지고 있다.

Colors way

로우(low) 머테리얼에서 오는 나무, 벽돌 등의 자연적인 칼라와 그 위에 채색된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의 중성톤의 칼라 무드가 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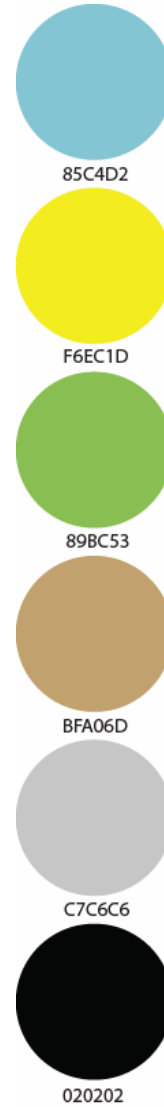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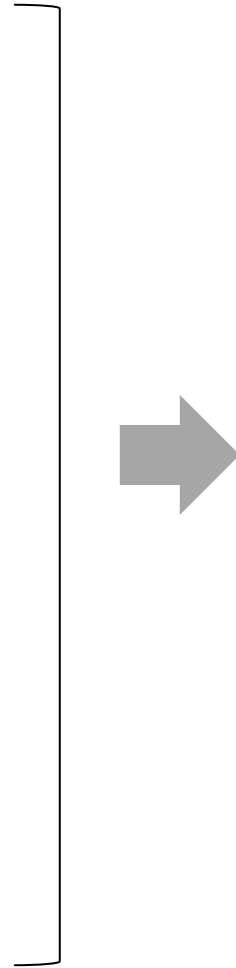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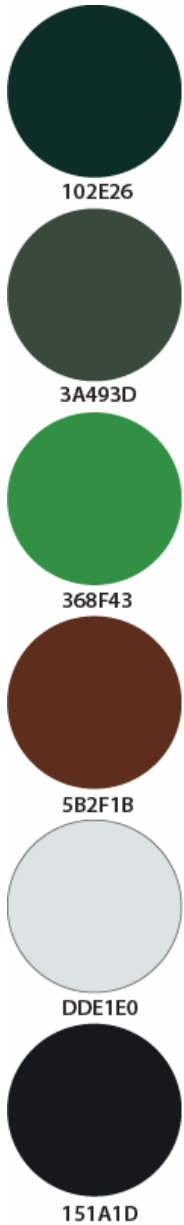


로컬컬라파노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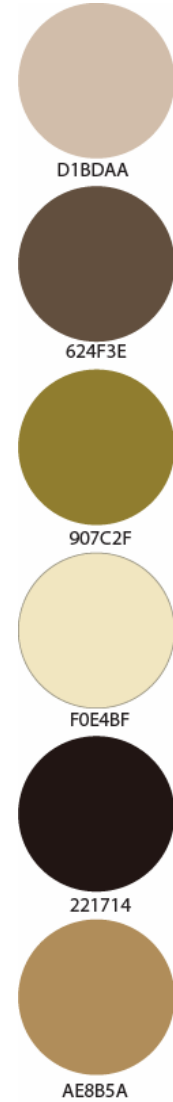
Local color panorama

지역: 신사동 가로수길

키워드:Urbanature-bystreet



Natural-light bystreet



Natural-sigh bystreet